



육박나무 / *Actinodaphne lancifolia* (Siebold & Zucc.) Meisn.

| 구분   | 설명      |
|------|---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     |
| 속국명  | 까마귀쪽나무속 |
| 과국명  | 녹나무과   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과명   | Lauraceae 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녹나무과 상록 활엽 교목으로 우리나라의 남쪽 섬지방에서 자란다. 중국,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중국, 일본에 분포하고, 우리 나라는 남쪽 섬지방에 자생한다.</p> <p>형태 : 상록활엽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가 15m, 지름이 40cm 정도로 자란다.</p> <p>꽃색 : 노란색</p> <p>개화기 : 7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 모양 또는 거꾸로 세운 달걀 모양이다. 둔두고 밑부분이 뾰족한 모양이다.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겉면은 진한 초록색이며 털이 없고 윤기가 난다. 뒷면은 회색빛이 도는 초록색이고 잔털이 촘촘하게 나 있다. 또한 7~10쌍의 킷모양맥이 있다. 잎자루는 어릴 때 털이 조금 있다.</p> <p>꽃은 7월쯤에 잎겨드랑이에서 꽃자루가 없는 우산모양꽃차례를 이룬다. 겉은 비늘조각으로 싸여 있다. 꽃은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그루에 달린다.</p> <p>총포조각은 노란색이고 꽃잎처럼 생겼다. 꽃덮이는 뚜렷하지 않게 6개로 갈라진다. 수꽃은 9개의 수술이 있고 그 중에서 안쪽 줄의 3개는 작은 샘 모양의 돌기가 있다.</p> <p>열매는 장과고 둥근 공 모양이다. 다음 해 7~8월에 붉게 익는다.</p> <p>열매자루에는 털이 촘촘히 나 있다.</p> <p>나무껍질은 평평하고 넓으며 연한 흑자색이다. 또한 크고 둥근 비늘처럼 떨어져서 버즘나무, 모과나무의 껍질처럼 되어 섬사람들은 해병대나무라고 한다. 어린 가지는 자갈색이고 좁은 껍질눈이 있으며 털이 없다.</p> <p>우리나라 남쪽 지역의 산기슭에서 자란다. 씨앗을 뿌리는 방법으로 번식시킨다. 육박나무는 전라남도 완도군 주도의 상록수림에서 자라며 이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 제 28호에 지정되어 있다. 그곳에 자라는 나무들은 돈나무, 붉가시나무, 참식나무, 후박나무, 사스레피나무, 까마귀쪽나무, 영주치자, 송악, 생달나무, 감탕나무, 빗죽이나무(비쭈기나무), 덩불락살나무, 팔배나무, 벚나무, 조록싸리, 청가시덩굴, 개머루등이 있다.</p> <p>꽃이 핀 후,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맺는다. 전라남도 주도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며 높이가 10m이고 가슴 높이에서 켜 지름은 1m에 달한다.</p> |